

근대 조선인의 만주 기행문 생성 공간

-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

허경진* · 강혜중**

차 례

- | | |
|---------------------------------|--------------------------------------|
| 1. 서론 | 4. 전근대 한자문화권 소통 방식이라는 변수 : 필담과 한시 수창 |
| 2. 근대적 매체와 만주 기행문 | 5. 결론 |
| 3. 문화공존의 근대적 풍경들: 박물관·박람회와 외인묘지 | |

국문초록

근대 조선인들에게 만주 여행은 단순한 타국체험을 넘어 민족 공동체의 생존과 결부된 문제였다. 이들이 여행을 통해 체험한 만주의 ‘문화’는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개인의 실존의 문제와 민족의 존립 문제 등이 치열하게 공존하는 것이었다. 즉, 만주 기행문은 개화기·일제 강점기 조선 지식인들의 실천적 문화 해석의 여정을 담은 글이라고 볼 수 있다. 1920~30년대 근대 조선인의 만주 기행문은 때로는 식민지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고, 때로는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공고하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기도 하였다. 또한 만주와 조선의 소식을 서로의 지역에 전하며 담론 형성을 촉진하는 문화교류 매체적 특징을 갖추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만주국 성립과 일제의 만주 이민정책 등의 전후로 정치적 영향관계나 여행 주체에 따라 조선인의 만주 여행과 기행문의 성격이 달라지는 지점들을 확인하고, 당시 만주의 문화와 여행자들의 만주 문화 인식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만주의 ‘문화공존’의 양상에 대한 몇 가지 장면에 주목하였다. 먼저, 오족협화(五族協和), 왕도낙토(王道樂土)의 제국주의적 의도가 반영된 ‘만주국’의 문화적 질서와 가치가 당시 박물관과 박람회를 통해 작자들에게 전달되고 해석되는 방식을 살폈다. 반면에 외인묘지를 마주대하는 시선에서는 만주의 문화 공존 메커니즘에 제국주의적 정치 논리나 문화적 계급의식 등으로 조직·포장된 이면의 모습이 포착되고, 인간의 실존적 고민과 성찰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것이 만주국 성립 전후로 기행문이 쓰인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찰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전통시기 동아시아의 공통 문자였던 한자를 이용한 전통적 문화교류 수단이었던 필담과 한시의 수창이 당시 만주 여행 과정에서 여전히 유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1930년대 이전 만주 기행문을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여행자들은 이러한 전통적 글쓰기를 통해 단순한 만주 ‘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만주지역의 사람들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정보나 인간적 정감을 나누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필담은 언어적 장벽을 넘어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며 교류할 수 있는 문화적 수단이었고, 마치 시화(詩話)처럼 서술된 만주 기행문에서, 작자와 만주 현지에 거주하는 동지들의 애국심과 당시의 상황은 한시 작품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주제어 : 근대 조선인 만주기행문, 만주 문화 인식, 만주 문화 교류, 신문, 필담, 한시 수창

1. 서론

근대 ‘만주(滿洲)’ 지역은 현재 요녕성(遼寧省), 길림성(吉林省), 흑룡강성(黑龍江省)을 아우르는 동북삼성(東北三省)이라 부르는 지역으로, 이주 조선인들의 삶이 터전이었으며, 항일 독립운동의 무대였다. 근대 만주지역은 조선인의 정치적·역사적 역동성을 간직한 땅으로, 1860년대부터 이루어진 조선인의 본격적인 이주는 만주지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1944년 시점에 약 170여 만 명에 이르렀다.¹⁾ 따라서 조선인들에게 만주 여행은 단순한 타국체험을 넘어 민족 공동체의 생존과 결부된 문제였다. 이들이 여행을 통해 체험한 만주의 ‘문화’는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개인의 실존의 문제와 민족의 존립 문제 등이 치열하게 공존하는 것이었다. 즉, 만주 기행문은 애국계몽기·일제 강점기 조선 지식인들의 실천적 문화 해석의 여정을 담은 글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기행문 작가들은 전통 시기와는 다르게 국가의 공식적인 사절단의 자격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만주를 방문하였으며, 이들의 기행문은 근대적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해져 만주의 실상을 알리거나, 만주 여행을 독려하는데 이용되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획기적인 근대 교통수단이 개인의 타국 여행의 물적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수의 기행문에서 교통편에 대한 서술이나 기차 안팎의 풍경, 기차의 속도 등이 묘사되는 것은 그만큼 이 새로운 “감각의 획득”²⁾이 여행의 중요한 조건

-
- 1) 김도형 외, 『식민지시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 서울: 선인, 2009 참조; 한석정, 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서울: 소명출판, 2008, 199쪽.
 - 2) 김현주는 기차와 신문에 대하여 “근대적인 국가와 국민을 형성한 물질적 기반이며 이들 근대적 매체가 선택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시각은 사람들의 감각과 인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고 하였고, 이경훈은 당시 열차 밖 풍경을 “철도 노선으로 구현된 제국의 공간적 기획”물로 평가했다. 김현주, 『근대 초기 기행문의 전개 양상과 문학적 기행문의 ‘기원』, 『현대문학의 연구』제16집, 한국문학연구회, 2001, 109-125쪽; 이경훈, 『식민지와 관광지-만주라는 근대극장』, 『사이』

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적·경험적 글쓰기를 위한 여행의 목적, 방법, 기행문을 게재하는 매체의 근대적 성격은 이 당시 기행문의 여러 가지 기술 상 특징들을 유발한다.

또한 당시 만주지역의 역사적 상황이나 작가 의식 역시 만주 문화에 대한 관점과 해석의 방식에 영향을 미쳐서, 만주 기행문의 서술방식에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조선에서 일제의 문화통치가 이루어졌던 1920년대는 만주지역의 항일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으므로, 이 시기의 기행문에는 만주에 사는 동포들의 생활상이나 만주지역의 독립운동에 관련된 내용의 기행문이 등장한다. 그러나 1932년 일제의 위만주국(偽滿洲國)³⁾이 성립된 이후 일제의 만주 이주의 정책적 후원⁴⁾에 힘입어 증가한 만주기행문⁵⁾에는 오족협화(五族協和)⁶⁾, 왕도낙토(王道樂土)의

SAI』제6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 78쪽.

- 3) 만주사변 직후 세워진 만주국은 명목상 독립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지배 하에서 관동군에 의해 세워진 괴뢰국이었으며, 일본은 만주지역을 당시 자국의 제국주의 총력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다.
- 4) 일본이 만주에 정치적 군사적 힘을 기울이자 조선총독부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조선 내에서 발생한 농촌 과잉인구 해소와 조선인의 불만을 무마하는 방책으로 조선농민의 만주 이민을 장려하였다. 조선총독부의 만주 이민 정책은 193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36년 9월 만주 이민을 담당하는 회사로 서울에 鮮滿拓植株式會社, 新京(長春)에 滿鮮拓植株式會社를 각각 세웠다. (김도형, 『한말·일제하 한국인의 만주 인식』, 『동방학지』제144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21-22쪽.)
- 5) 일본에서도 이 시기에 다수의 만주 기행문이 쓰였으며, 이것은 조선에서의 만주 기행문의 증가 양상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관내(關內) 지식인들이 만주국을 방문하고 만주 기행문을 남겼으나, 중국인 문학자가 남긴 만주 기행문은 일본인 및 조선인 문학자의 기행문에 비하여 수가 적다고 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전화, 『일·한·중 작가의만주기행문 연구』, 『인문과학』제42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29-43쪽 참조.
- 6) 당시 만주지역에는 조선인, 일본인, 한족, 만주족, 백계 러시아인 등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족협화, 왕도낙토의 땅으로 선전된 위만주국(偽萬洲國)의 실상은 민족간 차별과 갈등이 존재하였다. 실질적으로 일제는 일본인을 제1국민으로 대우하고 민족간 등급을 나누어 차별하였고, 민족간 갈등을 유발하여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었다. 자세한 논의는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지음, 윤대석 옮

땅으로 선전된 만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반영되어 근대화된 선진 ‘만주국’의 면모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예컨대, 작자들이 공유하였던 만주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인 ‘만주 벌판’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작자에 따라 긍정의 땅,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희망적 표상이거나, 만주의 척박한 현실과 토지에 대한 갈등을 겪는 동포들의 열악한 생활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만주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확인이거나 새로운 만주담론의 생산⁷⁾이었으며, 독자들은 작자의 관점으로 굴절된 만주의 문화를 접하고 만주의 표상을 재생산해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조선인들의 일부 기행문에는 전대 조선 여행자들이 만주지역의 인사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던 방식의 영향이 그대로 전해지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기행문에는 작자들이 만주를 여행하며 만나는 현지인들과 필담이나 한시 창수 등을 시도한 내용이 있다. 이는 한자를 매개로 ‘한 지붕’ 하에 살던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 온 소통 방식이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만주 기행문이 형성된 글쓰기 공간에서, 특히 만주국 성립 이전의 만주에 대한 인식과 만주 기행문 구성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만주담론과 만주 기행문의 성격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친 만주국 성립 전후의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인의 만주 기행문들을 비교·검토하면서, 각각의 기행문들이 구성된 ‘글쓰기 공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기행문의 형성 과정과 동기,

김,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서울: 소명출판, 2009.

- 7) “작자들의 만주 기행의 체험을 담은 글들을 살펴보는 것은 기행문학의 성격 자체가 이미 상상된 이미지와 실제적 체험 사이의 거리에서 벌어지는 의외의 담론효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회적이고 낯선 체험은 작가가 여행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념과 상상에 고분고분하게 부합하지 않는다. 체험과 상상의 격차, 혹은 풍문과 실상의 격차가 기행문만큼 정직하게 드러나는 글도 없다.” 서영인, 『일제말기 만주담론과 만주기행』, 『한민족문화연구』 제23집, 한민족문화학회, 2007, 210쪽.

기행문의 매체적 성격 등을 살피고, 만주 문화 인식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 공존’의 몇 가지 장면을 통해, 일제 강점기 조선 지식인이라는 특수한 여행 주체가 만주의 문화를 해석하고 기술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또 여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 문화 교류 양상을 통해 당시 만주라는 지역이 갖고 있던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근대 조선인의 만주지역에 대한 체험과 만주 기행문으로의 형상화 방식이 지금껏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논의 되었던 1930년대 이후 시기의 기행문들과 변별되거나 계승되는 의미 있는 지점을 포착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는 만주담론의 형성 과정을 추적한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여행 주체와 기행문 집필의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서술되는 만주 기행문의 성격을 보다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⁸⁾

2. 근대적 매체와 만주 기행문

당시 만주 기행문은 대부분 신문이나 잡지의 기획물로서, 기자들이나 원고를 청탁 받은 필자의 탐방기로 쓰였다. 사실적 체험을 바탕으로 1인

8) 현재까지 만주 기행문에 대한 선행연구는 근대 만주와 조선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만주 여행의 의미와 만주 문화의 성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는데, 대표적인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현주, 『근대 초기 기행문의 전개 양상과 문학적 기행문의 ‘기원’』, 『현대문학의 연구』, 제16집, 한국문학연구회, 2001, 95-129쪽.; 배주영, 『1930년대 만주를 통해 본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과 정체성』, 『韓國學報』제 112호, 일지사(한국학보), 2003, 35-57쪽.;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어문학(語文學)』제86집, 한국어문학회, 2004, 341-360쪽.; 서영인, 『일제말기 만주담론과 만주기행』, 『한민족문화연구』제23집, 한민족문화학회, 2007, 209-238쪽.; 장영우, 『만주기행문연구』, 『현대문학의연구』, 제35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375-412쪽.; 전화, 『일(日)·한(韓), 중(中) 작가의 만주기행문 연구』, 『인문과학』 제42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27-53쪽.

칭으로 서술되는 만주 기행문은 일종의 취재기이자 보고서로서 만주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작자 의식을 바탕으로 한 문학적 필치로 서술하여⁹⁾ 당시 만주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의 흥미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만주 ‘체험’을 유도하였다. 이는 특히 당시 일제가 실천적 글쓰기인 만주지역 기행문을 통해 자신들의 정책에 호응하는 만주담론을 조성하려 했던 것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조선과 만주의 신문매체들은 일제에 의해 끊임없이 검열, 정간을 당하며 문화통치를 강화하는 압박을 견뎌내어야만 했고, 일제의 기관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어려운 현실에서도 신문매체는 근대 조선 지식인의 글쓰기의 장으로 기능했다. 경영에 고심하던 신문사에게 기행문은 독자에게 새로운 문화와 정보를 알려주는 흥미로운 사실의 보도이자 작자의 체험이 담긴 이야기를 포함한 적절한 글쓰기였다.¹⁰⁾

“新聞에는 國境이 업”으며,(량재하(梁在廈), <간도기행(間島紀行)>¹¹⁾), “기차에서 新聞을 보는 사람을 中心으로 喜悅이야기로 꽃이 핀다.”(신기

- 9) 당시 “문학적 감수성”과 “저널리즘적 현장 취재 성격”을 모두 잘 살린 만주 기행문이 신문의 학예면에 많이 실렸음을 알 수 있는데(조영복, 『김기림의 언론활동과 초기 글들의 성격』, 『한국시학연구』제11집, 한국시학회, 2004, 363~364쪽.), 1930년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학예면의 기능과 역할이 중시되면서 문인 기자들이 신문제작의 선두에 나서게 되고 중요한 문학 담론들을 담당하였고, 학예면을 담당했던 문인 출신 기자들이 대부분 당대의 뛰어난 문인이었으며, 학예면의 독자층 또한 대체로 식자층이었던 관계로 문예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다는 측면(조영복, 『1930년대 신문 학예면과 문인기자 집단』, 『한국현대문학연구』제12호, 한국현대문학회, 2002, 157~159쪽.)을 고려한다면, 당시 만주 기행문이 사회문화적으로 비중 있는 텍스트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0) 김남석 외편, 『한국 언론산업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암사, 2000, 참조.
- 11) <간도기행(間島紀行)>: 이 글은 『조선일보』에 1932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연재된 것이다. 만주지역의 산업 현황에 대한 정보와 조선 이주민들에 대한 통계를 수록하였다. 글의 전반부에는 함남(咸南)지역에 대한 내용과 국경지역의 풍경을 담고 있고, 후반부에는 간도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함남지역과 간도의 공산당 검거 상황에 대한 통계와 공산당의 조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고의 작품과 작자에 대한 설명은 필요에 따라 『만주 기행문』(최삼룡·허경진 편, 서울:보고사, 2010)를 참조·인용하였다.

석(申基碩), <유만잡기(遊滿雜記)>¹²⁾)라는 기록은 신문을 통해 문화의 교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화를 공유하고 담론을 형성하였던 당대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① 本社에서 보낸 『號外』는 支局配達夫가 車窓으로 던져주었다. 『日中外交斷絶說』이 있다는 것이었나 궁금한 『國際뉴스』를 바다서 반갑다는 것보다도 제 손으로 맨드는 제 新聞을 地方에와서 보는 것붙이란形容할 수 없었다.

량재하(梁在廈), <간도기행(間島紀行)>

② 눈에 얼핏 띄운 것은 국경을 수비하는 中國 헌병과 순경의 색다른 복색이다. 단총을 얹혀찬 것과 오른편 어깨에서 외인편 아랫가지 내려 맨 가죽, 신문에서보든 蔣介石 張學良等 中國 군벌의 사진 그대로이다.

강경애(姜敬愛), <간도풍경(間島風景)>¹³⁾

③ 2월 2일 경성에서 온 신문을 보니 양력 3월 1일(음력 정월 29일)에 경성에서 천도 교주 손병희(孫秉熙)이하 몇 사람과 불교주, 예수교 목사 및 학생 몇 사람, 합 33인이 명월관(明月館)에 모여 뜻을 정하고, 탑동(塔洞)공원에서 민중을 소집하고 대한독립을 선언하며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 만세를 고창하니 이를 진압코자 경관과 군대가 출동하여 대혼란이 이루어졌으며, 경향 각처가 일도하여 항곡 벽지에 어느 곳을 막론하고 민중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정원택(鄭元澤), <지산해외여행일기(志山海外旅行日誌)>¹⁴⁾

-
- 12) <유만잡기(遊滿雜記)>: 이 글은 『동아일보』에 1935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9회로 연재된 것이다. 이 글은 봉천(奉天), 산해관(山海關)에서新京(新京), 하얼빈에 이르기까지 만주지역의 여행을 통해 겪은 바에 대한 감상, 지역의 정보와 정치적·역사적인 설명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 13) <간도풍경(間島風景)>: 이 글은 『신여성(新女性)』1932년 1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이 글은 작자가 간도로 들어가던 때를 회상하며, 당시 국경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국경을 수비하던 중국 헌병이나 순경의 모습과 감상 등이 드러나며, 중국보위단(中國保衛團)과 같든하는 농민에 대한 격정과, 만주에서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동지들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담아내고 있다.
- 14) <지산해외여행일기(志山海外旅行日誌)>: 이 글은 1919년 3.1운동 전후 만주지

기차에서 “국제뉴스”를 받아 든 작자는 기자로서 자신이 만드는 신문을 타지에서 읽게 된 것에 감동한다(①). 당시 근대 교통수단을 통해 각지로 발송되는 신문의 파급력은 놀라운 것이었다. 또한, 기차를 타고 두만강 유역의 국경을 넘으면서 처음 본 중국 군인들의 모습을 낯설게 느끼지 않는 모습은(②) 문화 교류의 매체로서의 신문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한다. 특히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신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긴박한 국내외 정세에 대한 정보는 이미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③) 이렇듯, 신문은 만주와 조선의 소식, 만주 여행의 경험을 서로의 지역에 전하며 문화 교류와 문화 담론 형성에 기여했다.

한편, 신문에 실린 보도나 기행문뿐만 아니라 만주를 직접 체험하고 문학작품을 창작해 만주에 대한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전하였다는 사실을 다음의 이광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몇 해 전 나는 海蔘威로부터 哈爾濱, 滿洲里를 通過하여 西伯利亞에 간일이 있다. 갈때는 겨울이어서 長白山脈의 눈을 인 森林과 北滿의 눈 별판의 遠大한 景致에 놀랐고 大正四年 歐大戰이 터지던 해 八月下旬에 西伯利亞로부터 도라올 때에는 動員列車에 막혀서 小驛에서 여러 時間式 停車하여서 茫茫한 曠野秋色을 滿喫하였다. 더구나 그 夕陽과 黃昏美는 平生에 잊지 못할 것으로 나는 이 印象때문에 『有情』을 썼다.

이광수, <만주(滿洲)와 나>

이광수는 만주 여행을 회고하는 수필 형식의 <만주와 나>(『만선일보』, 1942년)에서, 만주여행 도중 기차 안에서 본 눈덮힌 북만주의 자연에 감동받고, 특히 “석양과 황혼미”를 잊지 못하며 소설 『유정(有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이광수의 경험은 1933년 『조선일보』에 발표된 『유정』에서 주인공 최석이 만주의 자연에 이끌려 열차에서 내리는 장면으

역의 독립운동이 진행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낱자 별로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로 형상화된다.

이광수의 경우 만주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이 소설 속에서 재현된 사례이지만, 그 밖의 만주에 대한 이미지들의 재생산 메커니즘에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가공된 만주에 대한 간접 체험들과 만주에 대한 상상, 만주에 대한 사실적 정보들과 서로 교직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만주 ‘기행문’은 작자의 체험을 담보로 상대적으로 만주 문화의 원형이 보존된 매체로서 작동할 수 있었다.

3. 문화공존의 근대적 풍경들: 박물관·박람회와 외인묘지

본 장에서는 당시 여행자들의 만주 문화 인식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상징적인 장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주 기행문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만주지역의 이국적 풍경, 근대화된 만주지역에 대한 긍정적 감상이나, 당시 제국주의 현실에 대한 비판, 만주 동포들의 생활상 등이다. 특히, 근대 만주지역은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이민족(異民族)들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되면서 생활 속에서 문화가 교류되는 장이었으며, 조선인 여행자들도 이러한 만주의 풍경을 기행문의 주요 내용으로 흥미롭게 다루었다. 그 중에서, 통시적 ‘문화의 공존’을 ‘관람’시키기 위해 조직된 박물관은 만주국의 역사적 전통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근대화를 부각시키는 장치로서 여행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① 마차에서 내려 넓은 정원에 깔린 푸른 풀과 나무에 피로한 시야를 위무하며 백악삼층(白堊三層) 집을 들어서니 불상이 먼저 눈에 띈다. 구동북 군벌(舊東北軍閥)의 효장(驍將) 탕옥린(湯玉麟)의 사저였다는 이 건물은 훌륭하여 사저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진열품은 주한(周漢) 시대의 동기(銅器), 천하에 없다는 각사(刻絲), 자수를 위시하여 요(遼), 송

(宋), 금(金) 시대의 도자기, 송, 원(元) 이래의 명서화(明書畫), 북위(北魏) 이후의 묘지(墓誌) 등이 눈에 띈다. 더구나 거란문자(契丹文字), 애책류(哀冊類)를 볼 때 거란의 병화(兵禍)가 조선에 미쳐 천도까지 하였던 일이 있는 조선의 왕군(王君)을 생각하니 역사란 흥망의 자취를 돌아보고 다시금 감회가 깊었다. 더구나 이외에 열하이궁(熱河離宮)에 비장되었던 세계 진보 3천 5백여 점이 진열된 것을 보매 이것은 보물로서 크게 값있는 것이라 하여 몇 번이나 눈을 거기에 보내었다.

함대훈(咸大勳), <남북만주편답기(南北滿洲遍踏記)¹⁵⁾>

② 삼경로 십위로(三經路 十緯路)라는 데 있는 전 동북 군벌(東北軍閥) 탕옥린(湯玉麟)의 사저였었다는 백악 3층루, 주한(周漢) 시대의 동기(銅器), 요송(遼宋) 황금 시대의 도자기, 송원 이래의 서화 등이 주요한 진열품으로 각사(刻絲) 라는 것과 자수품들은 염직(染織) 공예로서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자유화의 필치가 많은 채문 투기들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낭세녕(郎世寧)의 원화를 관화화한 불인(佛人) 코산의 작품을 볼 수 있음은 의외였고, 동양화는 대체로 산수인데 선면(扇面)에 재미있는 것이 많았다. 총 소장품 3천 5백여 점, 대륙 민족의 정력, 유한(有閑), 치밀, 원숙 이런 것은 십분 느껴지나 고려나 이조의 센티멘탈이나 유머와 같이 좀 더 감성적인 데를 찢러주는 것은 너무나 없었다. 더구나 한(漢) 민족을 통치한 대청(大清) 제국의 고토인 봉천으로서의 의의를 갖기엔 질로나 양으로나 저속이 빈약한 박물관이었다. 만주에 왔다가 동양 제일이라고 선전되는 대련 박물관을 구경하지 못하고 지나는 것은 유감이다.

이태준(李泰俊), <만주기행(滿洲紀行)¹⁶⁾>

-
- 15) <남북만주편답기(南北滿洲遍踏記)>: 본 기행문에서 작자는 건국 6년을 맞이한 만주국에 대한 기대를 품고 만주로 향한다. 국경에서의 검열과정을 묘사하고, 국립 박물관, 백화점을 방문하는 등 신흥 만주국의 문화를 근대적 방식으로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만주의 국도(國都) 신경(新京)의 근대화된 모습에 감탄하며, 일본의 힘을 역설하고, ‘발전된 만주국’으로 조선의 농민들이 이주하는 데에 힘을 쏟을 것을 주장한다. 또한, 작자는 신경의 밤풍경과 이국적인 하얼빈의 퇴영적인 모습도 기술하고 있다.
- 16) <만주기행(滿洲紀行)>: 이 글은 수필집 『무서록(無序錄)』(1940년)에 발표된 것으로 작자는 평양에서 봉천(奉天)행 기차를 타고 열차 안팎의 풍경을 묘사하며

위의 두 예문은 모두 봉천 박물관 관람의 감상을 기술한 것이다. 이곳은 당시 일본의 국립중앙박물관의 봉천(奉天) 분관이였다. ①은 1939년 7월, 『조광(朝光)』에 게재된 것으로 작자 함대훈은 “만주 문제 특집호를 내려는 계획”으로 만주를 방문하고 “만주의 일반 문화를 한번 보고 오라는 사명(社命)”을 받아 도착한 봉천시에서 첫 번째 일정으로 박물관에 들른 것이다.

만주국이 성립된 후 6년 만에 만주의 선진 문물을 접할 기대를 품고 방문한 작자에게,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시대별 문화제가 한 눈에 전시된 박물관은 온갖 전통적 가치마저 수용하는 근대화된 신생 만주국의 문화적 포용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공간에서 그가 “병화(兵禍)”를 입은 “조선의 왕군(王君)”을 떠올리며 역사의 흥망성쇠에 감회가 깊었던 것은 당시 식민지 조선의 상황 때문일 수 있으나, 곧바로 “세계 진보(珍寶)”에 대한 서술로 넘어가고 조선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나 더 이상의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¹⁷⁾

한편, ②에서 이태준의 시선은 함대훈처럼 진귀한 문화 감상에 대한

봉천박물관을 구경한 소감과 자선단체인 동선당(同善堂)을 찾아 자선정책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후新京(新京)에 도착하여 일정을 보내고 조선인이 만든 큰 수로가 관통한다는 만보산(萬寶山) 일대의 “장자위후(姜家窟堡)”라는 마을을 찾아 그곳의 생활을 상세히 알아본다.

- 17) 함대훈이 조선왕조의 병화(兵禍)를 잠시 언급하는 맥락에 대한 해석은 기행문의 성격과 작자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데 기행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만주국의 긍정적 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조직되어 있다고 볼 때, 이것이 당시 조선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단면으로 의미가 부여되거나 확대 해석될 여지가 적어 보인다. 서경석은 만주기행문들의 작자들의 충위를 “만주국의 이면을 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보지 않은 경우”, “그 만주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는 경우 사이에 포진한 여러 중간 단계까지 상정”하고, 이를 “작가들의 시험성적표”에 빗대었다.(서경석, 앞의 논문, 345쪽) 이러한 기준으로 만주기행문의 작자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 개인의 의식과 기행문을 통한 실천의 문제를 분리하고 각각의 일치와 불일치의 부분들을 포착하기 위한 행간의 해석 작업이 요구된다.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¹⁸⁾ 박물관의 전시물들을 “대륙 민족의 정력”의 산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대륙의 문화에 결여된 “고려나 이조의 센티멘탈이나 유머”를 떠올리며 “감성”을 자극하는 자국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다. “특기할 만한 것”, “재미있는 것”은 많았지만, 그가 박물관에서 느끼고 싶었던 “대청(大清) 제국의 고토인 봉천으로서의 의의”는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것은 박물관이 속한 당시의 ‘만주국’이 더 이상 대청 제국을 잇는 주체성이 남아있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이며, 또한 박물관의 목적이 중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동양 제일이라고 선전되는 대련 박물관”을 관람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이태준에게 박물관은 근대화된 ‘만주국’의 전통적 저력을 전달받고 조국의 처지를 각성하는 장소가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전통 문화를 총체적으로 조직하고 배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전시하는 당시 만주국의 박물관과 함께 박람회는 만주국의 근대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문화 “관광”¹⁹⁾의 대상이 된다.

대련 박람회는 이름은 대련시의 주춧이나 관동청(關東廳) 만철의 협력으로 된 것이어서 ‘산업 일본’의 일대 시위운동이라고 일컬을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철, 삼정(三井), 삼릉(三菱)의 제(諸) 기관의 제품을 진열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판, 경도(京都)할 것 없이 일본 내 각지의 공업품이 진열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중공(重工)등으로부터 미술,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공업이 이만하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거기는 조선관(朝鮮館)이라는 것이 있어서 농산, 수산, 임산 같은 것을 진열하였으나 모두 원료품이요, 공업품에 이르러서는 경성 방직의 광목이 두

-
- 18) 장영우는 이태준의 <만주기행>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역사와 문화, 민중들의 삶을 파악하는 데 초점화되어 있다면, 이태준이 고미술품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지녔다고 언급한다. 장영우, 앞의 논문, 380-381쪽.
- 19) 이경훈은 만주가 “왕도낙도”의 슬로건과 더불어 “정의(正義) 일본”과 만주국의 근대화를 과시하기 위한 “관광낙도”였음을 지적하면서, “제국주의적인 국가의 기획”과 관련 있는 만주 관광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이경훈 (2009), 앞의 논문 참조.

어 쥘 있을 뿐이요, 식당에는 ‘朝鮮料理’하고 써 붙인 것도 간지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공업 없는 민족이 산업적으로 자활(自活)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공업이 없는 조선 민족은 딱하지 아니합니까. 왜 조선의 재산가들이 조선 내의 원료와 노동을 가지고 공업을 아니 일으킵니까. 박람회 문을 나오는 우리 몸에서는 찬 땀이 흘렀습니다.

이광수(李光洙), <만주(滿洲)에서>

만주에서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된 윗글은 『동아일보(東亞日報)』에 1933년 8월 9일부터 23일까지 연재된 것이다. 이광수가 관람한 대련 박람회는 “‘산업 일본’의 일대 시위운동”으로 “어마어마한 중공(重工)”에서 “미술,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일본 산업과 문화의 발달상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었다. 초라한 “조선관(朝鮮館)”은 만주국의 산업화 정도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만주국의 근대 문물은 곧 일본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광수는 이러한 근대화된 선진 문물, 즉 일본의 산업상과 대조되는 조선의 처지를 안타까워한다. 박람회는 ‘만주국’의 존립 양상을 반영하는 정치적 계획물로서, 일본이 의도한 ‘만주국’의 문화적 질서와 가치가 투영되어 궁극적으로 제국주의적 대동아 공영권의 정당성의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만주의 문화 공존 메커니즘의 제국주의적 정치 논리나 문화적 계급의식 등으로 의도적으로 조직되거나 포장되지 않은 만주의 문화를 접하고 당시의 만주 상황을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인식하고, 인간의 실존적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외인 묘지에 대한 장면들이 주목된다.

① 언덕 위에 평탄한 넓은 곳. 못 풀이 우거진 그 아래는 이 도시에 들어 왔다가 목숨을 잃은 수 없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무덤이 누워 있다. 그리고 그들의 속한 인종과 계급과 방면(方面)의 다종 다양을 표시하는 각종의 묘표와 십자가. 첫 어구에 일찍이 백로 시대(白露時代)에

영사로 왔다가 세상이 바뀌자 실의하고 여기서는 망명 중에 목숨을 잃은 기상학자 두도위코푸 [불명(不明)]의 허무와 같이 희고 큰 십자가-그리고 베비, 알벨 군 등등. 이들의 망령의 탄식처럼 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그들의 조국을 그리우는 한 많은 ‘세레나 드(세레나데)’의 흐느끼는 울음 소리와도 같다.

산상(山上)의 묘지의 묘표의 면면과 같이 용정이 포용하는 시민의 외연(外延)도 그렇게 다양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불투명한 시가의 공간에 부침(浮沈)하는 얼굴들은 날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라 한다. 나라를 쫓긴 망명자-탈주자-파산자-백계 노인(白系露人)의 영양(令嬢)들-실업군-그리고 ‘комму니스트’ 최후로 밀정...평범의 수평선상에 돌기한(어느 사람들의 어법을 빌면) 모두 불온한 인종이 난거하는 특수 지대다.

김기림(金起林), <간도기행(間島紀行)>²⁰⁾

② 거기서 조금 더 가면 各國人, 共同墓地가 있다. 各各땅을 논화 울타리를 치고 돌노쇠로 무덤을 곱게 단장하였스며 나무와 꽃을 무덤 옆에 심어노코 죽은 사람의 寫眞도 틀을 잘해서 거러노왔다. 朝鮮人의 共同墓地도 한편에 잇서 나는 한참이나 정신을 늦코 처다보왔다. 數千 數萬의 무덤 엮힐 걸어가며 人生의 덧업습, 나도 쉬히 저러게 되고야 말 것을 생각할 때 슬픔을 못 참었다. 그리고 따뜻한 故國을 떠나 고생사리 하다가 멀고먼-이런 윗판 벌판에 主人 업는 무덤 속에 못친 同胞의 情景을 生覺할 때 哭업시 슬펐다.

춘해(春海), <만주여행기(滿洲旅行記)>²¹⁾

- 20) <간도기행(間島紀行)>: 이 글은 『조선일보』에 1930년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12회 연재되었다. 이 글에서 작자 김기림은 기자로 활동할 당시 간도 대사면(간도 5.30 폭동)이 일어났다는 급박한 전보를 접하고 경성에서 열차를 타고 용정(龍井)으로 떠난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유하며 사회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만주의 낮은 풍경에 대한 적극적인 감상과 간도 여행에서 겪고 느낀 바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21) <만주여행기(滿洲旅行記)>: 이 글은 『조선문단』 1925년 9월호(총 제12호)에 게재되었다. 작자는 서울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하얼빈에 도착하기까지 열차를 타고 거쳐 갔던 개성과 평양, 봉천(奉天) 시가(市街)의 모습, 열차 안팎의 풍경 등을 묘사하였다. 작자는 하얼빈에 도착하여 열흘간 머무르며 만주지역의 자본을 바탕으로 한 상업의 발전 양상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만주의 드넓은 벌판이 조선의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①의 글에서 작자는 이국에 땅에서 문헌 땅자들의 무덤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긴다. 자국의 문화로 단장된 각양각색의 묘지의 수만큼, 조국을 떠나 타지에서 잠들기까지의 사연 많은 삶을 상기한다. 그에게 묘지의 이국문화는 곧, “망명자”, “탈주자”, “파산자”, “백계노인(白系露人)의 영양(令嬢)들”, “실업군”, “컴뮤니스트” 등 모두 당시 사회의 경계인으로서 타국에 쫓겨 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아픔을 간직한 인생들로 환원되면서, 작자의 현실 비판적 시각이 드러난다. 이들은 바로 현재를 사는 당시 용정의 구성원들의 모습이며, 사회구조적 모순의 반영이었다.

②는 춘해라는 필명을 썼던 『조선문단』의 발행인 방인근(方仁根, 1899-1975)의 글이다. 그는 문예잡지인 『조선문단』의 1주년을 기념하여 광고를 모집하고, 만주지역에 잡지를 선전할 목적으로 만주 여행을 떠났다. 하얼빈의 묘지를 방문하게 된다. 그곳에서 조선인의 공동묘지를 한참 바라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깊이 느끼고, 고향을 떠나 이국의 땅에 잠든 고단한 동포들의 삶을 떠올리며 가슴 아파한다. 그에게 그들이 묻힌 만주의 땅은 “樂土”가 아니라 한 맺힌 슬픔의 땅이다.

외인묘지에 묻힌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사유하면서 조국을 그리워했을 그들의 모습을 현재의 외인 묘지 풍경에 투사하고, 인간의 실존, 보편적 삶의 문제를 사유하는 기행문 작자들의 문화 인식에, 문화의 계층이나 계급은 없다.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타지로 왔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칠 숙명이며, 외인묘지의 다문화는 결국 ‘나’라는 한 개인의 삶으로 수렴된다.

위의 외인묘지 예문들에 나타난 성찰적 서술이 만주국 수립 이전 기행문들에 드러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함대훈 역시 외인묘지를 방문하지만, 그것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유로 나아가거나, 세속과 대비되는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외인의 묘지에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이 묘비에 쓴 묘비명이다. 간절한

한마디 말이 묘비 위에 쓰여져서 봄이나 가을이나 비바람에 그 잊지 못할 문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나는 묘지를 돌면서 때때로 조선인 묘지에 십자(十字)를 긋고 몇 시간을 배회하였다. 그러다가 나는 문득 어떤 묘비 앞에서 어떤 모녀가 꽃 심는 것을 보았다. 그 묘비에 쓴 것에 의하면, “평화가 내 사랑하는 남편 가슴 속에 영원히 깃드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리아(西比利亞)에서 42세에 죽은 그 남편의 영을 위해 지금 그들이 꽃을 심는 것을 볼 때 사후 자기 묘지에 이렇게 꽃나무 하나라도 가꾸어주는 이가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된 일이라? 하고 나는 한껏 감상적인 기분에 사로잡혔다. 3시간 후 여기저기 재미있게 쓴 묘비명을 보며 배회하다가 송화강 구경을 하기로 하고 다시 우리는 버스에 올랐다.

함대훈, 앞의 글

윗 글에서 함대훈은 오히려 하얼빈의 외인묘지에서 “재미있게 쓴 묘비명”을 읽거나, 모녀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꽃을 심는 광경을 “행복된 일”로 묘사하고, 자신의 사후를 낭만적으로 상상하며 한껏 “감상적인 기분”에 사로잡힌다.

함대훈이 목격한 광경은 실제 만주국의 풍경이었을까, 아니면 기행문을 위한 상상이 가미된 서술이었을까. 이처럼 당시 근대 조선인의 만주 기행문에서는, 만주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는 작자의 입장과 같은 궤도로 만주의 근대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전근대 한자문화권 소통 방식이라는 변수 : 필담과 한시 수창

전통시기 동아시아의 공통 문자였던 한자는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전통시기의 유물로 평가되고, 민족주의 담론이 조성되면서 자국어, 민족어 등의 부흥 운동 과정에서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²²⁾, 실질적으로 오

랜 기간 문화의 근간을 이루어온 한문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다수의 근대 지식인들은 여전히 한문으로 서적을 편찬하였고, 한시를 지었다. 본 장에서는 기행문의 서술방식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전통적 문화교류 수단이었던 필담과 한시의 수창이 만주 여행 과정에서 현지인들과 깊은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문화 교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馬車는 五臺가 나란히 하여 가게 되었습시다. 거의가 다 中國사람입니다. 萬綠叢中一點紅, 그 中에는 얼는 눈에 뜨이는 中國青年 한 사람이 보됩니다. 아마도 北京이나 外國地方에 遊學하는 青年가태 보였습니다. 三四日이나함께가는길이라, 둘이 다 말은 모르나, 彼此에 靈犀는 비치워, 한번 말을 실컷 하여 보았스면 조켓스나, 그는 엇질 수 업고, 어느날은 큰 고개를 넘다가 幾十里假量 步行하게 되어, 서로 筆談이 시작되었습니다. 筆談의 要領이 이려합니다. 青年 말만 쓰겟습니다. 「最近 日本의 內情이 엇더합니까,」하고 못습니다. 다음은 「奉直戰爭時에 張作霖이가 日本과 秘約한 條約이 잇스듯한데, 貴下가 或其內情을 몰으심니까,」하고 무릅니다. 또는 「將來 世界 大勢가 엇지 될 것 갖스니까,」하는 등의 政治의 問答입니다. 이만하면 그 青年의 뜻이 엇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乃終에 알고보니, 그 청년은 中國의 一青年士官인 崔春園이라 는 有志였습니다. 崔氏는 그 날 點心 때에, 午餐 한 턱을 내고, 朝鮮人の OO²³⁾사상이라든지 또는 朝鮮에 天道教形便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무릅이 잇섯습니다.

② 小學校에 暫間들엇든 이략입니다. 어느날 點心참에 마춤 그 엇집이 小學校이기로, 學校求景을 갖섯습니다. 生徒는 限百餘名假量 되어 보이는데, 門에 들어서자, 어엽브고도 귀여운 少年들이 서슴업시 내의 소매에 매여 달녀, 學校求景을 期於히 잘하여 달나는 筆談이나옵니다. 나

22) 한자(문)은 당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동아시아의 근대화, 내셔널리티의 창출 과정에서 재고를 요하는 문제적 대상이었다. 이혜령, 『한자 인식과 근대어의 내셔널리티』, 『탈식민의 역학』, 서울: 소명출판, 2006, 221-251쪽.

23)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표기이다.

는 그 瞬間에 外國에 왔다는 感想을 이룹니다. 어린이란 神聖한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는 內外가 업습니다. 웃는 짓이라든가 뛰고 노는 짓이라든가, 팔목을 잡고 다른 아해보다 나와 먼저 말하야 달나는 아앙이라든가 하는 것이, 조금도 朝鮮少年과 다름이 업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말과 衣服입니다.

이돈화(李敦化)의 <남만주행(南滿洲行)(第一信)>²⁴⁾

③ 아-勇快한 中國女性! (중략) 나는 車中에서 實際로 鳳凰城 女子 中學生徒 한 사람과 數時間 동안 筆談을 交換해보고 그네의 지나친 發達에 놀내었다.

신석신(辛錫信), <봉천기행(奉天紀行)>²⁵⁾

이돈화는 무순에서 흥경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중국청년과 오랜 시간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자 필담으로 대화를 나눈다. 북경 등지의 유학생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인 청년은 군인이었고, 그가 필담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봉직전쟁²⁶⁾의 내막

24) <남만주행(南滿洲行)(第一信)>: 이 글은 1925년 7월 1일 『개벽(開闢)』, 제61호에 게재되었다. 이 글은 작자가 맨 처음 국경을 넘어 접한 시차와 낮선 복장의 외국인 등을 통해 타국에 대한 인식과 감상으로 시작된다. 그는 무순(撫順)탄광에 들러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동포들을 보고 자본주의의 부작용인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역설한다. 또한, 여행 중 중국의 마방객주(馬房客主) 등에서 겪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당혹감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흥경(興京)에 대해 소개하면서 조선의 항일자치 단체의 내력과 정의부(正義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25) <봉천기행(奉天紀行)>: 이 글은 『조선일보(朝鮮日報)』에 1930년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4회에 걸쳐 연재된 것이다. 신석신(辛錫信)이라는 작자는 신원 미상이다. 수학여행으로 봉천(奉天) 여행길에 오른 작자는 유적지를 방문하여 역사적 관점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봉천의 사생아 구제책 등 정책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현지 학교를 방문하여 당당한 중국 신여성의 모습에 감탄한다. 재만동포의 궁핍한 삶에 가슴 아파한다.

26) 봉직전쟁(奉直戰爭): 1920년대 중국 군벌사이의 전쟁. 일본의 지원을 받았던 장작림(張作霖)의 봉천(奉天)파와 영미의 지원을 받았던 직례(直隸)파가 1922년과 1924년에 벌인 전쟁으로, 장작림이 패퇴하였다.

이나, 이후의 세계정세, 조선의 독립 사상에 관련된 것²⁷⁾ 등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필담은 이들 청년이 국가 정세에 대해 소통하고,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①)

작자는 소학교에 들어서서 필담을 나눈 이야기를 이어서 서술한다. 학교에 들른 작자에게 어린이들은 학교 구경을 잘 하라는 필담을 전한다. 잠시 동안의 만남이지만, 국경과 나이를 뛰어넘는 어린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들이 조선 소년과 다름이 없다는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낀다.(②) 한편, 신석신은 이동 중에 만난 중국 여학생과 수 시간 동안 필담을 나누며 중국 신여성의 발달상을 확인하였다고 고백한다.(③)

이들은 단순한 만주 ‘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만주지역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시대적 고민이나 인간적 정감을 나누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말로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뜻을 전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담은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며 교류할 수 있는 문화적 수단이 되고 있으며, 만주 기행문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한편, 1924년 『개벽(開闢)』제49호에 실린 기행문 ㅅㅅ生²⁸⁾의 <남만

27) 검열을 피하기 위한 표기의 내용을 문맥상 추론한 것이다.

28) ㅅㅅ生: 이름대신 ㅅㅅ生이라고만 밝힌 작자의 신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글이 수록된 『개벽(開闢)』제49호의 목차에 있는 작자의 설명에 “在北京”이라고 쓰여 있으므로 북경에 거주했던 이로 판단된다. 당시 생존 인물 중 호나 필명의 끝 글자가 “生”이고(호: 일편단생(一片丹生), 단생(丹生), 필명: 열혈생(熱血生), 무애생(無涯生),) 북경에 머물렀던 이로 신채호(申采浩, 1880-1936)가 있는데, 글에서 밝힌 바처럼 5년 전인 1919년 만주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ㅅㅅ生이 그의 필명으로 추정되나, 이후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근대 신문과 잡지에 작자들이 현실적 상황 때문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글을 게재하며, 또한 전문적인 필자로서(주로 신문 잡지에 관련된 인물) 동일인물의 중복게재의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필명으로 작품을 남겼다고 하며, 신채호의 경우에도 신문사의 주필(主筆)로서 필명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자세한 논의는 김영민, 『근대

(南滿)을 단녀와서>²⁹⁾에는 작자가 남만주지역을 여행하면서 주고받은 한시 5편이 수록되어 있다. 북경에 거주하는 작자는 동포들의 생활상을 살피고자 만주지역으로 두 번째 여행에 나선 것인데, 남만에 도착해 여정을 함께하거나, 숙소를 제공했던 이들과 나는 5편의 한시 중 다음의 첫 번째 시는 여행지에서 맨 처음 길림에서 만난 洪00씨의 시에 화답한 것이다.

幸逢良友兼逢春, 다행히 좋은 친구를 만나서 함께 봄을 맞으니,
一夕談論意更新. 하루 저녁 이야기에 뜻은 새롭네.
可笑當年失敗客, 가소로운 당년의 실패 객이
安知後日成功人. 어찌 후일에 성공할 사람임을 알리오.
風驅殘雪增寒氣, 바람이 몰고 온 잔설(殘雪)에 한기가 더하니,
日到晴天脫俗塵. 해 뜬 맑은 하늘 속진(俗塵)을 벗었네.
萬事想來都是夢, 만사를 생각하면 모두 꿈이니
暫憑詩句弄吾眞. 잠시 시구에 의지해 나의 참 마음 희롱하네. (작자)

작자는 홍씨의 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자신이 화답한 시만 수록하였다. 홍씨가 적어준 시를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홍씨가 시를 지어 외워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후 호란집창자(呼蘭集廠子)³⁰⁾에 도착해서 만난 임장(林庄)라는 인물은, 홍씨에게 화답한 작자의

작가의 탄생: 근대 매체의 필자 표기 관행과 저작의 권리], 『현대문학의 연구』 제3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9-10쪽.

29) <남만(南滿)을 단녀와서>: 이전에도 남만주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는 작자는 다시 찾은 만주에서 지인들의 집에 머물며, 동포들의 궁핍한 생활상에 개탄하며, 그 원인을 국가의 자본력 결핍, 교육정책의 부재 등에서 찾고 있다. 이에 자본가들이 합자(合資)하여 만주지역의 토지를 사고, 산업, 교육 시설 건설 등을 건설할 것을 개선책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남만 동포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조선에 있는 농촌운동 인사들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글의 목적인다고 밝힌다.

시에 다음과 같이 차운한다.

運命初頭甲子春, 갑자년(1924년) 초 봄의 운명에,
 天心世事一時新. 하늘의 마음과 세상이 일시에 새롭게.
 燕雲護送屠龍客, 연운(燕雲)³¹이 도룡객(屠龍³²客)을 호위하여 보내니
 渤海來尋捫虱人. 발해는 이 잡는³³ 사람을 찾아오네.
 溪破殘水呈鈎筑, 쇠잔한 시냇물은 검(劍)과 축(筑)³⁴을 바치고,
 山留點雪洗埃塵. 산에 남은 한 점 눈은 티끌을 씻네.
 除非實力無他術, 실력이 아니면 다른 술수는 없으니,

30) 호란집창자(呼蘭集廠子): 호란진(呼蘭鎮)의 옛 지명이다. 길림성 화천시(樺甸市)와 반석현(磐石市)의 중간, 곧 화전에서 서북쪽으로 30km, 반석사에서 동쪽으로 40km에 위치한 조그마한 소도시이다. 주변은 넓은 평지로서 水田농사를 하기에 적당한 곳이었다. 조선인들은 水田농사가 가능해지면서 이 곳에 모여들었으며, 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에 앞장섰다. 이곳에서는 정의부(正義府)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가운데서도, 남만주지방 조선인 사회에서 사회주의사상이 전파되는 교두보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24년 11월 한족노동당(韓族勞動黨), 1925년 11월 남만청년총동맹(南滿靑年總同盟)이 각각 이 곳에서 결성되었다. 1928년 2월 한족노동당이 재만농민동맹(在滿農民同盟)으로 개편된 것도 이 곳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이념을 떠나 만주지역 민족운동 세력을 통일하려는 민족유일당조직촉성운동(民族唯一黨組織促成運動)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인 1928년 5월, 민족운동가들은 호란집창자(呼蘭集廠子)의 조선인 소학교에 모여 민족유일당조직촉성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 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Ruin/RuinforeignView.jsp?id=CA108110>

31) 연운(燕雲): 연주(燕州)와 운주(雲州)의 병칭으로, 화북(華北) 지방을 가리킨다.
 32) 도룡(屠龍): 용을 잡는다는 말로 특별한 재주를 뜻한다. 『장자(莊子)』, <열여구(列禦寇)>.
 33) 문슬(捫虱): 방약무인(傍若無人)한 것. 옛날 중국 진(晉)나라 왕맹(王猛)이 남의 앞에서 꺼리지 않고 옷에 붙은 이를 문지르며 이야기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34) 검축(鈎筑):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연(燕)나라 자객 형가(荊軻)와 그의 친구인 고점리(高漸離)를 빗댄 말이다. 연(燕)나라에서 거문고와 비슷한 현악기인 축(筑)을 잘 댔던 고점리(高漸離)는 진시황을 죽이러 떠나는 형가(荊軻)를 위해 축을 연주하고, 형가는 반주에 맞추어 <역수한풍(易水寒風)>을 불렀다는 고사가 있다. 『사기(史記)』 卷86, <자객열전(刺客列傳)>.

種得眞因結果眞. 진인(眞因)을 심어 결과도 참되네. (林庄氏)

스스生은 아마 자신이 흥씨에게 화답한 시를 임장에게 보인 모양이다. 그는 이 시를 지은 임장을 “南滿의 主人翁이라 할 만한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시의 내용이 자못 비장하다. 본 기행문에서 작자는 남만의 동포들이 “侵略的 資本主義의 迫害를 못이겨” 남만에서 표류하고, 중국인들의 세력에 밀려 고생하는 동포들의 처지에 가슴 아파하면서, 독자들에게 조선인이 합자하여 토지를 사고, 힘을 모아 시설을 설비하며 국력을 키워야 함을 역설한다. 임장은 동포들과 국가를 걱정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작자에게 이러한 시를 선사한 것이다.

이곳에서 수일을 머문 이후 작자는 일행 중 한명인 츠트와 길림으로 돌아간다. 이에 임장의 아들 동구(東邱)³⁵⁾와 그 동안 여정을 함께했던 몽호(夢湖)라는 인물은 작자 일행에게 다음과 같은 이별시를 써준다.

握君正在憶君時, 그대를 생각하며 악수 나눌 때,
 筇屐聯翻事又奇. 지팡이에 나막신 잇달아 뒤집어지니, 일은 또한 기이하네.
 千里行裝餘尺劔, 천리행장엔 긴 칼이 여유 있고
 一天風雨玩牀棋. 온 하늘의 비바람은 평상의 바둑판을 희롱하네.
 窮山雪積春猶動, 눈 쌓인 궁벽한 산엔 봄이 동하는 듯하고
 遼海雲橫月若遲. 요해(遼海)의 구름은 달에 빗겨 더디게 가는 것 같네.
 待到澄清圓會日, 나라를 말끔히 다스려 회합할 날이 오길 기다리며,
 記留茲韻快吟詩. 이 운으로 기쁘게 읊은 시를 기록하네. (東邱)

35) 동구(東邱): 당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준형(李濬衡, 1875년~1942년)의 호와 같다. 이준형의 아버지 이상룡(李相龍)의 호나 자, 혹은 다른 이름이 기행문에 나온 林庄인지 알 수 없어서 추후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준형은 도동서숙(道東書塾), 협동학교(協同學校), 보문의숙(普文義塾), 동화학교(東華學校) 등을 설립, 신학문 보급과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다. 1910년 국권이 상실되자 아버지와 함께 만주로 가서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에서 교육과 군사훈련을 맡아 보다가 귀국하여 강대해지는 일본세력에 국운을 비판, 자결하였다.

卽有其人必有詩,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시가 있어
 深謀何幸入神奇. 어찌하면 신묘하고 기이한 경지에 들어갈까 깊이가 피하네.
 浮生空惱躑躅路, 떠도는 인생은 공연한 번뇌에 길 위에 머뭇거리고,
 世事宛如錯落棋. 세상사는 완연히 어지러운 바둑판같구나.
 風雨懷鄉千里遠, 비바람에 고향이 천리처럼 멀게 느껴지고
 溪山送客一筇遲. 시내와 산이 객을 보냄에, 한 걸음이 더디네.
 莫忘平昔慇懃約, 언제나 은근한 약속 잊지 마시라고,
 欲說中心更贈詩. 속 마음을 말하고자 다시 시를 드리네.(夢湖)

작자는 이들의 시에 “나는 그들이 준 詩를 한 번 읽고 또 외이고 하다가 이러케 和한 일이 잇었다”면서 다음의 화답시를 이어 수록하였다.

浮生逢別定無時, 떠도는 인생 만남과 이별은 정해진 때가 없는데,
 或出尋常或出奇. 혹은 뛰어나고, 혹은 기이하네.
 世事惟餘三尺劍, 세상사 도모함에 삼척검³⁶⁾이 넉넉하니,
 人心何奈一枰棋. 사람의 마음이 한판의 바둑을 어이 하랴.
 山水初解溪聲大, 산빙(山水)이 처음 풀려 시내 소리는 크고
 岸柳方舒日影遲. 언덕의 버드나무에 바야흐로 햇살 비추고 해 그림자
 느긋하네.
 春雪霏霏南滿路, 봄 눈은 남만(南滿)의 길에 분분한데,
 堪忍困憊誦君詩. 고달픔을 이기며 그대 시를 외우네. (작자)

시대적 사명을 품고 “浮生”의 삶을 살아가는 작자는 동지들과의 이별이 못내 아쉽지만, 운을 맞추어 서로의 시에 화답하며 교류한 기억을 간

36) 삼척검(三尺劍): “三尺劍”은 유방(劉邦)의 고사에 나온다.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뒤에 “내가 포의(布衣)의 신분으로 일어나서 석 자의 칼을 쥐고 천하를 차지하였으니, 이것이 하늘의 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吾以布衣提三尺劍取天下, 此非天命乎.)”라고 말했다. 『史記』卷8, <高祖本紀>.

직하고 다시 떠나는 여정 길에서 그들의 시를 외우며 고달픔을 이겨낸다.

본 기행문에서는 여행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한시 5수가 산문 서술과 어우러져 마치 시화(詩話)를 떠올리게 하는데, 아마도 작자처럼 한시 창작과 향유에 능숙한 이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염두 해 두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시 작품들은 동포들의 힘겨운 삶과 국가의 처지를 걱정하며 떠난 작자의 여행 의도와 여행을 통해 동지들과 뜻을 공유하고 서로를 북돋았던 당시의 상황과 심경을 효과적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글쓰기로서, 기행문의 독자들에게 문예적 미감과 감동이 동시에 전달되도록 하였다.

만주 기행문에 나타난 이러한 전통적 글쓰기의 양상은 특히 1930년대 이전의 기행문의 특징적 서술방식으로 생각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국 이후 만주 여행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기행문의 내용과 작자층위의 변화가 생기고, 기행문의 서술방식 역시 함께 달라지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함대훈은 <남북만주편답기>에서 압록강을 건너는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한시의 한 구절을 떠올린다.

압록강을 건너며 “압록강수하시진 별루년년침록파(鴨綠江水何時盡別淚年年添綠波)”의 일구가 생각나며 여기 뿌린 눈물도 적지 않으리라 믿고 비오는 소리에 다시 감개가 깊었다.

이 역시 전통적 글쓰기 문화가 만주 여행 과정에서 작자의 감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장에서 다룬 기행문에서 전통적 글쓰기 방식이 만주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공감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함대훈의 여행 목적은 근대화된 만주국의 규모와 이국적 풍경을 ‘감상’하고 자신이 본 광경을 기행문을 통해 전달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적 문화교류 방식이 유용하지 않

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의 기행문들에서도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이러한 전통적 서술방식의 흔적, 또한 전통적 글쓰기 방식이 기행문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 다른 기행문들에 대한 자료 탐색과 고찰이 계속된다면, 근대 조선인의 만주 공간 인식과 기행문의 성격을 밝혀내는 데에 중요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1920~30년대 근대 조선인의 만주 기행문은 때로는 식민지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고, 때로는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공고하기 위하여 기획되기도 하였다. 또한, 만주와 조선의 소식을 서로의 지역에 전하며 담론 형성을 촉진하는 문화교류 매체적 특징을 갖추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만주국 성립과 일제의 만주 이민정책 등의 전후로 정치적 영향관계나 여행 주체에 따라 조선인의 만주 여행과 기행문의 성격이 달라지는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당시 만주의 문화와 여행자들의 만주 문화 인식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만주의 ‘문화공존’의 양상에 대한 몇 가지 장면에 주목하였고, 각각의 기행문이 포착하고 해석하는 만주의 풍경에 차이가 있었음을 밝혔다. 먼저, 오족협화(五族協和), 왕도낙토(王道樂土)의 제국주의적 의도가 반영된 ‘만주국’의 문화적 질서와 가치가 당시 박물관과 박람회를 통해 작가들에게 전달되고 해석되는 방식을 살폈다. 반면에, 외인묘지를 마주대하는 시선에서는 만주의 문화 공존 메커니즘에 제국주의적 정치 논리나 문화적 계급의식 등으로 조직·포장된 이면의 모습이 포착되고, 인간의 실존적 고민과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고찰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전통시기 동아시아의 공통 문자였던 한자를 이용한 전통적 문화교류 수단이었던 필담과 한시의 수창이 당시 만주 여행 과정에서 여전히 유용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1930년대 이전 만주 기행문을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여행자들은 전통적 글쓰기를 통해 단순한 만주 ‘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만주지역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시대적 고민이나 인간적 정감을 나누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필담은 언어적 장벽을 넘어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며 교류할 수 있는 문화적 수단이었고, 마치 시화(詩話)처럼 서술된 만주 기행문에서 작자와 만주 현지에 거주하는 동지들의 애국심과 당시의 상황은 한시 작품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상화되었다.

1920~1930년대 근대 조선인의 만주 기행문의 생성 공간은 당시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다른 여행의 주체와 만주 문화의 해석, 다양한 서술방식을 생산하는 역동성을 보이고 있었다.

참고문헌

- 김남석 외편, 『한국 언론산업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암사, 2000, 1-460쪽.
- 김도형, 「한말, 일제하 한국인의 만주 인식」, 『동방학지』제144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1-32쪽.
- 김도형 외저, 『식민지시기 채만조선인의 삶과 기억』, 연세국학총서 103, 서울: 선인, 2009, 1-375쪽.
- 김영민, 「근대 작가의 탄생: 근대 매체의 필자 표기 관행과 저작의 권리」, 『현대문학의 연구』 제3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7-38쪽.
- 김현주, 「근대 초기 기행문의 전개 양상과 문학적 기행문의 ‘기원」, 『현대문학의 연구』제16집, 한국문학연구회, 2001, 95-129쪽.
-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탈식민의 역학』, 서울: 소명출판, 2006, 1-448쪽.
- 백동현, 「한말 민족의식과 영토관」, 『한국사연구』제129호, 한국사연구회, 2005, 117-144쪽.
-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어문학(語文學)』제86집, 한국어문학회, 2004, 341-360쪽.
- 서영인, 「일제말기 만주담론과 만주기행」, 『한민족문화연구』제23집, 한민족문화학회, 2007, 209-238쪽.
- 장영우, 「만주기행문연구」, 『현대문학의연구』제35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8, 375-412쪽.
- 전화, 「일(日),한(韓),중(中)작가의 만주기행문 연구」, 『인문과학』제42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27-53쪽.
-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지음, 윤대석 옮김,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서울: 소명출판, 2009, 1-410쪽.

- 이경훈, 『식민지와 관광지-만주라는 근대극장』, 『사이 間 SAI』제6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 73-112쪽.
- 조영복, 『1930년대 신문 학예면과 문인기자 집단』, 『한국현대문학회』제12호, 한국현대문학회, 2002, 155-182쪽.
- 조영복, 『김기림의 언론활동과 초기 글들의 성격』, 『한국시학연구』제11집, 한국시학회, 2004, 357-385쪽.
- 최삼룡·허경진 편, 『만주기행문』, 서울: 보고사 2010, 1-507쪽.
- 한석정, 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서울: 소명출판, 2008, 1-377쪽.

<Abstract>

A Study on the Space for Formation of Korean
travelogues of Manchuria in Modern Times
- focusing on 1920's-1930's -

Hur, Kyoung-Jin · Kang, Hye-Jong

This paper aims to study on the way of perceiving and exchanging cultures in Korean travelogues of Manchuria written in 1920's and 1930's. Manchuria had been the base of lives set up by Korean immigrants and the place for independence movement, so for Korean, travel to Manchuria was more than just travel because it was related with their nation's existence. The 'cultures' experienced by them through travel were the mixture of traditional and modern values or the problem of personal and national existence.

The Korean travelogues of Manchuria were some kind of report for news papers and magazines, so it arouse readers interests and make them have motive to experience Manchuria promoting the discourse of Manchuria. Also, the travelogues were functioning as a media to exchange cultures of Manchuria and Korea each other.

Among many travelogues mainly covering about exotic scenery, Manchuria's modernization, Korean immigrants' lives in Manchuria, this paper focuses on several scenery to catch some features of Manchu culture mixed with various ethnic groups and showing 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First, this paper considers museum and exposition as the media to

convey Manchuguo(滿洲國, 1932~1945)'s cultural values imposed by Japanese government to travelers. And then it moves to the perspective to the cemetery of foreigners and explains that the descriptions of cemetery show hidden side of co-existence of Manchu cultures organized by imperialistic mechanism.

Expeciall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traditional way of exchanging cultures through conversation by writing using Chinese characters and composing Chinese classical poetry, Hanshi(漢詩). For example, Korean travelers shared their thoughts about international situation with Chinese soldier, realized the development of Chinese woman or felt a sense of closeness with children by writing using Chinese characters. And some traveler who went to Manchuria to see Korean immigrants' lives and find the way of improving their situation and his nation associated with people in Manchuria exchanging Chinese poetry. Therefore it proves that Chinese characters were still useful means of exchanging cultures despite of modernization and the atmosphere of concentrating mother tongue. Traditional writing style was one of important feature of Korean travelogues of Manchuria in modern times, especially before 1930's.

Key Words : Korean travelogue, Manchuria, Manchu, culture
exchange, news paper, writing by Chinese characters,
Chinese poetry

■ 논문접수 : 2011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1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1년 4월 15일